

영화 <방자전>에 나타난 욕망의 모방적 양상 연구

손민영[†], 정원식^{**}

Research on Mimetic Aspect of Desire in the Movie, “The Servant”

Minyoung Son[†], Wonsik Jung^{**}

ABSTRACT

Through Rene Girard's theory of triangle of the desire,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mimetic nature of desire as shown in the main character of the movie The Servant. This paper analyze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desire in the character, which is revealed by the process of reinterpretation via the medium change and convergence from Chunhyangjeon, a classic oral novel in Korea, to The Servant, a movie created by director Dae-woo Kim in 2010. The Servant is a meaningful research subject as the transformation of the inner desire of the character is accomplished by boldly designating Bangja, who is supposed to be a minor character, as the protagonist. In particular, Rene Girard's argument on the indirectness of desire in the theory of triangle of the desire helps understand the point where the character's inner desire, which naturally occurred in the existing narrative, transforms into the mimetic desire by an intermediary. This indirectness of the mimetic desire of the main character suggests a similarity with modern men's vanity which is offered by the capitalist era. Through this, the modern meaning of the mimetic aspect of desire as revealed by the transformation from the movie The Servant to Chunhyangjeon can be understood.

Key words: The Servant, Chunhyangjeon, Rene Girard, Triangle of the Desire, Vanity

1. 서 론

2010년 제작된 김대우 감독의 <방자전>은 한국의 대표적인 구전 소설인 <춘향전>을 각색하여 영화화한 것이다. <춘향전>의 영화화는 1922년 <춘향전>을 시작으로 2000년 <춘향뎐>에 이르기까지 80여년에 걸쳐 18편이 이루어졌다[1]. 평균 4년에 1번 정도 영화화가 될 만큼 <춘향전>의 서사는 한국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많은 <춘향전>의 영화화 시도 중에서도 김대우의 <방자전>은 여타의 작품들과 다른 차별성을 갖는다. 그 핵심은 주변 인물이었던 방자를 이야

기의 주체로 바꿔,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이야기를 재구성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방자전>은 <춘향전>을 다룬 영화에서 흔치 않았던, 일종의 스펀오프 영화로 분류될 수 있다[2].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의 재구성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등장인물들의 욕망의 양상이 기존의 것에서 크게 변형되었다는 점이다.

<방자전> 속 인물들은 <춘향전> 인물들과 달리 새로운 경쟁 관계를 갖게 된다. <춘향전>의 경우, 춘향을 둘러싸고 이몽룡과 변학도가 실제적인 경쟁 관계를 갖는 듯 보인다. 하지만, 춘향의 욕망은 처음부터 사랑의 성취보다는 정절이라는 가치에 있었다

* Corresponding Author : Wonsik Jung, Address: (04620) 205 Dongguk Choongmuro Center, 2, Toegye-ro 36-gil, Jung-gu, Seoul, Korea, TEL : +82-10-9365-8218, FAX : +82-2-2264-0159, E-mail : creator@dongguk.edu
Receipt date : May 9, 2017, Revision date : June 13, 2017
Approval date : June 14, 2017

[†] Graduate School of Digital Image and Contents, Dongguk University
(E-mail : minyoung_son@naver.com)

^{**} Research Institute for Image and Contents, Dongguk University

는 점에서, 이는 단지 피상적인 경쟁 관계이다. 그것은 춘향의 행위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인 유교적 가치관에 의해 내면화된 행동이었고, 춘향의 변학도에 대한 거부 역시 봉건 신분사회에 대한 반발로 읽혀질 뿐, 춘향의 사랑을 얻기 위한 두 남자의 경쟁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3].

하지만 <방자전>은 다르다. 춘향 앞에 방자와 이몽룡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주고 삼각관계를 형성한다. 성적 욕망과 신분 상승이라는 춘향의 두 가지 욕망 앞에서, 방자와 이몽룡은 실질적인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4]. <방자전>의 서사는 이러한 경쟁의 심화를 통해 진행되는데, 이는 르네 지라르가 저서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을 통해 정의한 욕망의 삼각형 이론과 맞닿아 있다. 욕망의 삼각형 이론에 따르면, 중개자는 욕망하는 주체와 욕망의 대상 사이에 존재하며, 주체와 중개자는 경쟁의 관계를 갖는다. 주체는 대상에 대한 자신의 욕망이 생애적이고 자발적이라고 믿지만, 실제로 주체의 욕망은 중개자와의 경쟁 관계를 통해 간접화된 욕망이라는 것이다[5]. 지라르는 이것이 현대인들이 갖는 욕망의 양상과 일치한다고 설명한다. 즉,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상 중개자의 욕망을 모방하지만, 스스로의 욕망의 자발성을 인정받기 위해 중개자를 은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방자전>에도 유의미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욕망의 삼각형 이론을 기반으로 <방자전> 속 주요 인물들의 욕망을 분석하고, 이들 욕망의 양상과 의미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춘향전>과 김대우의 <방자전> 속 인물들의 욕망 변화

<방자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인물 욕망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주로 서사적인 접근이나 인물의 트라우마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방자전> 속 인물 욕망의 발현은 <춘향전>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요컨대 춘향의 욕망이 외부의 간섭이나 환경과는 별개로, 춘향의 내부로부터 스스로 발생된 것이라는 전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춘향전>과 <방자전> 속 인물 욕망 비교를 통해 욕망의 발현이 두 작품 모두 생애적인 것인지, 아니면 <방자전>의 경우 어떠한 차이를 갖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 표를 참고로 하면, <방자전>에서 인물 욕망의 변화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춘향전>에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던 방자와 향단의 욕망이 구체화 되었다는 것, 둘째 춘향과 몽룡의 욕망이 복합적으로 변화했다는 것, 셋째 변학도의 욕망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작품 사이 욕망의 양상 변화를 읽어내기 위해서 고찰해야 할 것은 새롭게 등장했거나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닌, 본래의 것이 크게 변화한 춘향과 몽룡의 욕망이 된다.

그렇다면 춘향과 몽룡의 변화한 욕망의 특징은 무엇인가? 먼저 춘향의 경우, <춘향전>에서의 욕망은 몽룡에 대한 사랑과 자신을 버리고 떠난 지아비를 끝까지 지켜내고자 하는 정절이다. 그러나 이러한 춘향의 욕망이 사실은 몽룡을 통한 신분상승에 대한 내적 욕망의 작용이라는 가정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결국 중인이었던 춘향의 비천한 신분, 그리고 딸의 행복을 위해 몽룡과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월매가 보여준 일련의 행위를 종합해보았을 때, <방자전>에서 변형한 양상, 즉 춘향이 노골적으로

Table 1. Comparative table of Character's Desire between <Chunhyangjeon> and <The Seravnt>

Chunhyangjeon	Character	The Servant
love with Mong-ryong, chastity	Chunhyang	better social status, sexual desire for Bangja
X	Bangja	love with Chunhyang
love with Chunhyang, pass the state examination	Mong-ryong	sexual desire for Chunhyang, challenge Bangja to win,
X	Hyangdan	love with Bangja
sexual relationship with Chunhyang	Byun Hak-Do	sexual relationship with Chunhyang

드러낸 몽룡을 통한 신분상승이라는 목표는 개연성이 있으며 원작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6]. 하지만 춘향의 방자에 대한 성적 욕망은 <춘향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욕망이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유교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의 성을 적극적으로 쟁취하는 행위는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춘향 본인에게서 생래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4].

몽룡의 경우도 춘향과 비슷한 양상으로, <춘향전>에서의 춘향과에 대한 사랑의 욕망은 <방자전>에서는 춘향에 대한 소유욕으로 심화된다. 이 역시 충분히 개연성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유교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의 사랑을 욕망한다는 것은 곧 신체에 대한 속박을 함께 의미했기 때문이다[6]. 중요한 것은 <방자전>의 몽룡이 갖고 있는 방자에 대한 열패감이다. 양반 신분의 몽룡이 천민인 방자에 대해 열패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영화의 전반, 특히 춘향의 사랑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처럼 천민에 대한 양반의 경쟁의식 역시,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감안하면, 춘향의 욕망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스스로에게서 발생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4].

결국 <방자전>에서 춘향과 몽룡의 변화된 욕망의 양상은 현대적인 욕망관의 투영이다. 그 핵심은 춘향과 몽룡의 이러한 욕망의 변화가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이다. <방자전>의 이러한 변화는 방자의 존재가 춘향과 몽룡 사이에 놓이면서 시작된다. 따라서 <방자전>에서 춘향과 몽룡의 욕망의 변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자가 그들 사이에서 중개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욕망의 삼각형을 통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3. 중개자와 욕망의 간접화

욕망의 주체와 대상 사이의 관계는 직선적인 구조가 아니다. 이와 같이 지라르에 따르면, 주체와 대상은 삼각형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으며, 삼각형의 한 꼭짓점에 중개자가 존재하는 것이 욕망의 삼각형이다. 욕망의 삼각형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중개자와 중개자에 의한 욕망의 간접화다[5].

주체가 대상을 생래적이고 자율적으로 욕망하는 직선 구조와 달리, 삼각형의 구조 속에서 주체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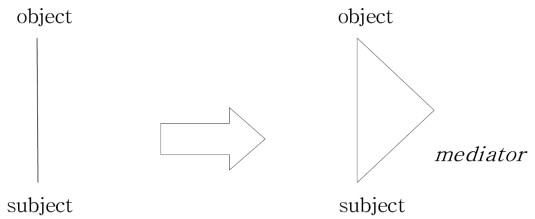


Fig. 1. Desire of Straight Line and Triangle.

개자를 통해 욕망하게 되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욕망이다. 형이상학적인 욕망은 무의식적 상호작용으로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7]. 이는 중개자에 의해 그 욕망이 모방되기 때문이다. 주체의 대상에 대한 욕망은 중개자로 향하게 되고, 암시 또는 경쟁의 과정을 통해 중개자 자신에 의해 모방된 욕망을 주체에게 돌려준다. 이러한 과정을 중개자에 의한 간접화라고 하며, 이는 주체에 대한 중개자의 물리적, 정신적 거리와 영향에 따라 외면적 간접화와 내면적 간접화로 나뉜다.

외면적 간접화는 주체와 중개자 사이의 거리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충분히 멀거나, 혹은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영향력이 적은 경우 발생하며, 주체는 중개자를 동일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 경우 중개자는 주체와 경쟁적 관계에 놓여 있지 않아야 하며 중개자는 주체에게 암시의 효과를 통해 욕망을 모방하게 한다.

반대로 주체와 중개자 사이의 거리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만큼 가까워지면 이는 내면적 간접화에 해당한다. 내면적 간접화의 경우 주체와 중개자는 대상을 향한 경쟁의 관계에 놓이는데, 때문에 주체는 경쟁자를 질투하거나 증오하는 감정이 발생한다. 중개자 역시 주체와 마찬가지로 대상을 소유하길 바라거나 혹은 자신의 영향력 안에 두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정신적인 거리는 좁혀지지 않는다. 하지만 중개자는 주체보다 대상과의 거리에 있어 우월적 지위에 있다. 때문에 주체는 중개자를 원망하는 동시에 대상에 미치는 중개자의 영향력에 대한 선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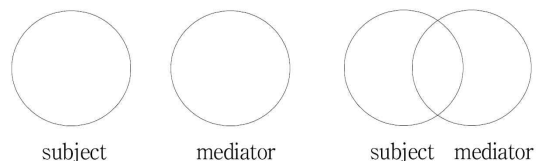


Fig. 2. Internal and External Indirectness.

을 갖기도 한다. 주체의 중개자에 대한 선망은 중개자에 대한 모방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욕망이 강해질수록 중개자에 대한 모방 역시 강해진다. 이러한 모방 심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욕망의 순서가 뒤바뀌어 처음 욕망했던 대상의 존재가 오히려 중개자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수단이 되어 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주체에게 있어 중개자를 모방하는 것은 자신이 중개자를 질투하는 심리와 상호모순이 되기 때문에, 주체는 최대한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노력한다. 결국 욕망의 삼각형은, 생래적이고 자율적인 욕망이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며 주체의 욕망은 중개자에 의해 모방된 것임을 보여준다[5].

4. <방자전>과 욕망의 삼각형

<방자전>에서 모방된 욕망의 핵심은 방자의 등장에서 비롯된다. 방자의 존재는 춘향과 몽룡의 욕망을 자극하여 복합적인 형태로 변화시키고, 방자는 욕망의 삼각형 속 중개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방자가 중개자로서 춘향과 몽룡의 새로운 욕망의 양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방자의 등장으로 인하여 세 사람의 욕망은 모방의 양상으로 심화되고, 이는 <방자전>이 <춘향전>과 차별점을 보이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 즉, 르네 지라르의 이론처럼, 현대적 인간의 욕망과 유사한 형태인 간접화에 의한 모방된 욕망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4.1 춘향

춘향의 욕망을 암시하는 것은 그녀의 어머니인 월매다. 월매는 주체인 춘향의 중개자로서 대상인 몽룡과의 혼인을 통한 신분상승의 욕망을 심화한다.

월매는 욕망의 삼각형에서 방자가 갖는 욕망의 외면적 간접화를 이끄는 마노인과 거의 동일한 위치이며, 대상을 향한 주체와의 경쟁 관계에 놓여 있지 않

다. 때문에 주체는 자신이 중개자의 제자임을 외부로 드러내고 선언하기도 한다. 외면적 간접화의 주체인 춘향은 자신의 모델인 월매를 공개적으로 존경하고 스스로 그의 제자임을 자처한다.

월매는 자신의 삶과 달리 춘향이 몽룡과의 혼인을 통해 더 나은 신분이 되기를 바라며 중개자로서 춘향의 욕망에 암시를 한다. 춘향은 월매의 충실한 제자로서 방자와의 묘한 관계를 밝히면서도 결국 암시에 의한 행위, 즉 몽룡의 질투를 이용하기 위해 방자와 유사 연인 관계를 맺는다. 춘향은 이러한 유사 연인 관계를 통해 행위의 자율성과 우월성을 획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춘향의 속물근성은 관객에게 드러나게 된다[8]. 월매가 춘향의 방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알고 춘향의 숙된 행위에 대해 비판적인 조언을 하지만 춘향은 그런 암시를 준 당사자가 월매 본인이었음을 밝히며 스스로의 욕망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다.

몽룡을 통한 신분 상승과 방자의 욕신을 통한 성적 만족이라는 두 가지 욕망에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춘향이라는 인물은 <방자전>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이다. 몽룡이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방자에 대한 춘향의 태도는 돌변한다. 춘향의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달라진 행동과 적절한 거리두기를 통해 방자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

외면적 간접화에 의한 암시와 달리 춘향의 내면적 간접화는 복합적이다. 성적 욕망의 경우 예외적으로 중개자가 경쟁자로서 존재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춘향의 경우 방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방자를 육체적인 사랑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다. 이러한 춘향의 내면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은 방자에 대한 간접적인 배반 행위로 확인된다. 춘향은 과거 시험을 위해 떠나는 몽룡에게 전달하는 편지를 방자를 통해 바꿔치기 한다. 자신과 방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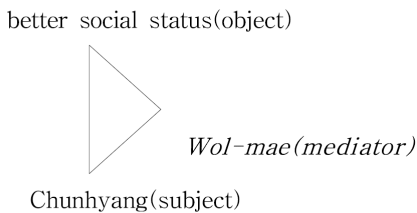


Fig. 3. Ascent of Status through Mongryong : External Indirect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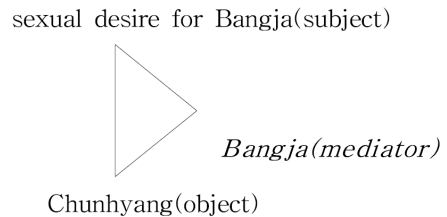


Fig. 4. Sexual Desire to Bangja : Internal Indirectness (Double Indirectness)

육체적 관계를 몽룡에게 폭로해 그의 경쟁심을 자극하는 한편, 방자의 존재가 춘향에게 있어서는 그저 몽룡을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임을 드러낸다. 결국 방자는 춘향과 경쟁 관계에 놓여있지 않은 중개자이며 욕망의 대상은 방자의 육체에 대한 성적 욕망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방자의 춘향에 대한 사랑은 춘향이 자신의 육체를 대상으로 한 성적 욕망과 경쟁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이러한 간접화를 이중간접화 또는 교태라고 한다[5].

이중간접화에서 주체의 대상에 대한 돌진은 결국 중개자를 향하게 되고 중개자는 주체의 돌진을 저지한다[10]. 춘향이 방자의 육체에 대한 성적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방자의 춘향에 대한 사랑을 방해하게 되는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중간접화의 주체인 춘향은 방자의 사랑과 고통에는 무관심을 보이고, 이는 춘향의 자기중심적인 욕망, 즉 스스로의 성적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행동으로 귀결된다[11].

4.2 몽룡

르네 지라르는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자를 중개자에게 밀어 보내는 것은 중개자로 하여금 그 여자를 욕망의 대상으로 삼게 한 뒤에 욕망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5]. 몽룡 역시 방자를 춘향의 곁에 남겨두고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방자에게 완전한 복수를 꿈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몽룡은 춘향을 사이에 두고 방자와 지속적인 경쟁의식을 보인다. 그것은 신분이라는 계급의식을 넘어서는 원초적이고 남성적인 강함이 방자에게 있기 때문이다[11]. 몽룡의 경쟁의식은 춘향을 차지하는 문제를 넘어, 신분 계급의 상하 관계를 위협하는 존재론적 불안으로 자리 잡는다. 주체의 대상을 향한 열망은 대상에 대한 증오심과 구분되지 않으며 이를

욕망의 양가성이라고 한다[8].

몽룡이 방자에 대해 갖고 있는 남성적 열패감은 내면적인 자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몽룡은 방자와는 다른 차원에서 강한 내적 고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을 이기기 위해 방자를 괴롭히고자 한다. 마노인은 극의 초반부에 방자와의 대화를 통해 몽룡에 대해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의 성격에 대해 관객에게 누설한다. 이는 몽룡의 내적 고통이 쉽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몽룡의 내적 갈등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전술했던 바와 같이 욕망의 도치 현상이 일어나며, 대상은 중개자에게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모하게 된다. 다시 말해, 몽룡의 춘향에 대한 욕망은 중개자인 방자에게 승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게 된다는 것이다 [12]. 몽룡은 방자가 자신보다 먼저 춘향의 몸을 소유했음을 확인하게 된 시점 이후부터 새로운 욕망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방자에 대한 승리를 통한 자존감의 회복인 것이다.

결국, 몽룡은 장원 급제 후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의 높아진 신분 지위를 바탕으로 춘향과의 협상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목표인 방자에 대한 복수를 실행한다. 수용과 협상의 과정을 통해 헤게모니적 권력 관계를 형성하여 춘향을 방자로부터 뺏기로 한 것이다[13]. 이를 위해 몽룡은 가짜 미담을 이용하고 결과적으로 몽룡의 계략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몽룡은 가짜 미담을 통해 특별 진급을 하게 되고 춘향까지 차지하는가 싶었지만, 끝내 방자에게 승리하지 못한다. 방자의 죽음을 무릅쓴 행동이 춘향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방자에 대한 승리라는 몽룡의 욕망은 실패로 돌아간다. 그러자 몽룡은 마지막 순간 방자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해침으로서 마지막 복수를 하려 한다. 몽룡이 춘향을 절벽에서 밀어 살해하려고 했던 것은 방자에 대한 승리라는 스스로의 욕망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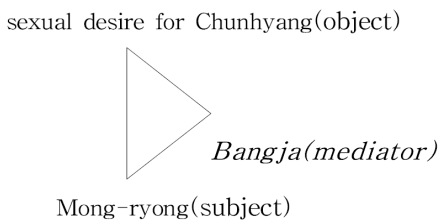


Fig. 5. Desire of Possession Chunhyang : Internal Indirect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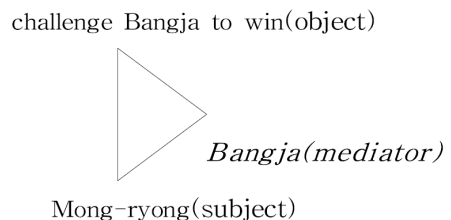


Fig. 6. Desire of Winning Bangja : Double Indirectness,

최후의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춘향은 이 모든 비극의 희생양이 되었으며, 그녀의 희생은 승리의 가능성을 잃어버리고 위기에 빠진 지배계급의 분노를 ‘정화’ 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르네 지라르는 “희생제의”를 통해 모방이라는 인간의 근본적 속성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 집단을 위기에서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구성원들 내부의 폭력을 단 하나의 대상인 희생양에게 집중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14]. 결국, 춘향의 희생은 몽룡과 방자의 대결구도, 즉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헤게모니적 권력관계 다툼에서 지배계급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정된 수순이었으며, 이는 몽룡이 가진 욕망의 허상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4.3 방자

방자는 <춘향전>의 주변 인물(Sidekick)에서, <방자전>에서는 주인공으로 부상하여, 화자로서 이야기를 전달한다. 몽룡의 몸종으로서 친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몽룡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 관계에서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춘향과의 사랑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게 된다. 방자의 욕망은 춘향이나 몽룡과는 달리 단순하며,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하지 않는다.

마노인은 방자와 직접적 경쟁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 다만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하며, 지속적으로 춘향에 대한 방자의 성적 욕망을 자극한다. 르네 지라르는 돈키호테와 산초의 관계를 예로 들어 주체와 중개자간의 암시에 대해 설명한다. 돈키호테의 제자인 산초가 생리적인 욕구 이상의 새로운 욕망 - 자기가 통치자가 될 ‘섬’을 갖고 자신의 딸에게 공작부인 칭호를 가지게 하고 싶어 하는-을 품게 된 것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돈키호테가 중개자로서 그에게 암시해주었기 때문이다[5]. 이러한 암

시의 효과는 주로 외면적 간접화에서 발생한다.

한편, 내면적 간접화는 주체와 중개자 사이의 경쟁 관계를 통해, 인물의 욕망을 간접화하는 것에 핵심이 있다. 이 경우 방자를 주체로 놓으면, 중개자는 몽룡, 대상은 춘향이 된다.

욕망의 대상인 춘향의 사랑을 성취하는데 있어 몽룡은 경쟁자이며 장애물이다. 방자는 몽룡이 자신보다 높은 신분 계급에 있고 대상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압도적이라는 현실 때문에 갈등한다. 중개자인 몽룡이 대상과 가까워질 때 마다 중개자에 대한 원한은 상승하게 되고, 이러한 원한이 강렬해질수록 대상인 춘향에 대한 욕망 또한 동시에 상승한다. 욕망의 삼각형에서 주체-중개자 사이의 거리와 중개자-대상 사이의 거리는 항상 같다. 두 관계는 이등변 삼각형을 이루고 있으며 그 길이가 짧아질수록 원한 또는 욕망의 강도는 상승한다[5]. 그것은 중개자가 대상에 대한 소유의 영향력이 크고 그 관계가 가까워지면, 동시에 주체와 중개자 사이의 거리 또한 가까워진다는 의미이다. 결국 방자의 춘향에 대한 욕망의 정도는 중개자인 몽룡에 의해 내면적 간접화 되고 있는 것이다.

몽룡에 의해 간접화된 방자의 욕망은 어느 순간 충동적으로 발현되는데, 춘향이 계곡에 빠뜨린 신발을 주워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계곡에 뛰어드는 행위가 대표적 장면이다. 이는 ‘상상적인 욕망의 모방현상’에 의한 경쟁 심리의 심화로 볼 수 있다. 르네 지라르는 이를 “구매자가 지불할 마음이 있는 것보다 더 비싼 가격은, 그가 자신의 경쟁자에게 있다고 상상하는 욕망에 의해 매겨진다. 왜냐하면 복사된 열망에서 모든 것은, 심지어 그 열성의 정도까지도, 모델로 간주된 욕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5].” 라고 설명한다.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상은 실체를 넘어서는 허구적인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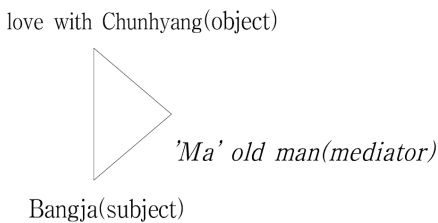


Fig. 7. Desire of Love for Chunhyang : External Indirect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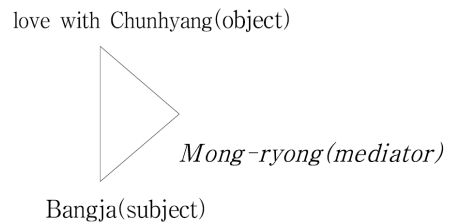


Fig. 8. Desire of Bangja to Chunhyang : Internal Indirectness.

한편, 방자는 경쟁자인 몽룡을 증오함과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그의 행위를 모방함으로써 중개자를 모델의 지위에도 올려놓는다. 방자는 몽룡에 대한 자신의 선망을 자각하지 못한다. 보통의 경우 “질투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서 절대로 모델을 지각하지 않기 때문”이다[5]. 내면적 간접화의 희생자들은 질투하는 본인의 욕망이 자연발생적이라고 믿는다. 다시 말해, 방자는 자신의 춘향에 대한 욕망이 몽룡과의 계급적 차이로 인한 열등의식과 신분 상승의 욕망으로부터 간접화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애적인 욕망과 간접화된 욕망에 대한 방자 자신의 인식차이는 그 자체로 욕망의 모방적 특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5. 결 론

<방자전>의 등장인물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트라우마에 의한 인물들의 욕망[4] 또는 <춘향전>에서 <방자전>으로의 매체변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욕망 변화의 외형적 특징을 중심으로 고찰되었다[11]. 이와 달리 본고에서는 <방자전>의 주요 인물 욕망의 모방적 양상을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이론을 기반으로 분석해보았다. 특히 원전인 <춘향전>과의 비교를 통하여, 춘향과 몽룡의 변화된 욕망인 신분상승, 소유욕, 성적 욕망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욕망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방자전>의 인물 욕망 구조는 <춘향전>이 갖는 주체-대상의 직선적 구조와는 다름을 확인하였다. 즉, 르네 지라르가 욕망의 삼각형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방자전>의 등장인물들은 중개자에 의해 간접화된, 삼각형의 욕망을 갖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먼저 춘향의 경우, 중개자인 월매에 의해 암시된 욕망을 추구하며 동시에 중개자에 대한 동경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몽룡을 통한 신분상승의 욕망이 외면적 간접화에 의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내면적 간접화의 대상은 방자의 욕체를 통한 성적 욕망으로서 이는 중개자인 방자에 의해 심화되는 동시에 경쟁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좀 더 복합적인 이중간접화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간접화를 종합하여 보면, 춘향이 갖는 욕망의 양상은 타인의 욕망을 모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동시에 방자와의 관계를 통해 보면, 이기

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양상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몽룡의 경우는 춘향에 대한 욕망의 발생이 중개자인 방자와의 경쟁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내면적 간접화에 의한 욕망이 드러나고 있다. 경쟁 관계를 통해 욕망이 심화된다는 것은 결국 주체가 중개자의 욕망을 모방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몽룡의 욕망은 내면적 간접화를 통한 욕망의 모방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방자의 욕망의 대상은 춘향에서 방자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변모한다. 이는 대상을 차지하기 위한 중개자와의 경쟁 관계가 결국은 쟁취하고자 하는 욕망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역설적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몽룡의 욕망 역시 춘향과 마찬가지로 이중간접화된 내면적 간접화를 이룬다고 볼 수 있으며, 방자에게 경쟁에서 패배한 몽룡의 내적 고통은 절정부에 이르러 춘향의 희생으로 귀결된다. 몽룡의 욕망이 갖는 양상을 종합해보면, 방자와의 경쟁 관계에서 심화된 욕망은 다시, 방자와의 경쟁 관계에서 패배하면서 이중간접화 된다. 결국 몽룡은 방자에 대한 복수를 새로운 욕망의 대상의 지위에 올려놓게 되는데 이는 마지막에 춘향의 희생을 통해서 해소된다. 이는 모방된 욕망은 비극적 서사로 귀결됨을 시사한다.

한편, 방자의 경우는 마노인의 암시에 의한 외면적 간접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몽룡과의 경쟁을 통해 춘향에 대한 욕망이 심화되며 내면적 간접화를 이룬다. 하지만 방자에게서는 춘향이나 몽룡에게서 복합적으로 심화되었던 이중간접화된 내면적 간접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방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춘향에 대한 변하지 않는 사랑만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데, 이는 방자가 <방자전>의 주인공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전체 이야기의 주제를 전달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자 역시 욕망의 삼각형 구조 안에서 몽룡과의 경쟁 관계를 통해 춘향에 대한 욕망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욕망의 모방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인물의 욕망이 모방적 양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르네 지라르는 인물의 모방된 욕망을 현대 자본주의 사회 속 인간이 가진 가짜 욕망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현대인이 가진 속물근

성과 허영심을 지적한다. 광고와 같은 대중 매체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암시 받고 한정된 재화를 차지하려는 경쟁 관계에서 모방된 욕망을 쫓고 있는 것이다. <방자전>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변화된 인물의 욕망 구조를 통해, 이러한 현대인의 자화상을 담아내고 있다. <춘향전>의 스토리와 인물을 차용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맥락의 관점과 정서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방자전> 속 인물들은 모방된 욕망을 통해 신분 계급을 둘러싼 인간 군상의 허영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심화되며 자본에 의해 새로운 계급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방적 양상을 갖게 되는 현대인의 욕망 구조와 유사한 맥락이다.

재해석의 과정에서는 작가가 의도하던 그렇지 않든, 해당 시대의 사회적 기류가 작품에 조각된다. 결국 기존 서사의 재해석이 유의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재창조되는 시대와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작가적 견해가 필요하며, 그것이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을 때 아류가 아닌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부여 받는다. 관객은 <춘향전>을 통해 알고 있는 익숙한 설정과 스토리임에도, 멜로드라마에서 치정극으로, 희극에서 비극으로의 파격적 전환을 통한 성공적인 매체 변이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인물 욕망의 변이를 통해, 욕망의 모방적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인의 자화상을 반영하고, 관객이 그것을 현대화된 욕망의 인물로의 동일시를 통해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영화 <방자전>은 작품으로서 재해석의 유의미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REFERENCE

- [1] D. Cho, "Visual Image Text Exploration of <ChunHyangJeon> and the Vision : Focused on Film <BangJaJeon>,"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Vol. 51, pp. 179-199, 2011.
- [2] Y. Kim and S. Jeon, "A Study of Features Reinterpreting Original Characters from Spin-off Film-Mainly Focused on <Maleficent> & <The Servant>," *Bulletin of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Vol. 17, No. 2, pp. 37-50, 2016.
- [3] J. Yi, "Critical Review on the Literary Value of Chunhyangjeon," *Journal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Vol. 44, pp. 271-298, 2013.
- [4] S. Cho, "Study on the Narrative Technique in Movie <Bangja-jeon>," *Hanminjok Emunhak*, Vol. 63, pp. 375-402, 2013.
- [5] R. Girard, *Mensonge Romantique et Verite Romanesque*, Hangilsa, Seoul, 2001.
- [6] S. Chang, "The Structure of Chunhyang's Desire and the Reader's Desire in Chunhyangjeon-Focused on Wanpan Yulneochunhyangsoojulga," *Theses on Korean Literature*, Vol. 55, pp. 193-230, 2010.
- [7] W. Choi, "The Symbolic Realization of Desire Pursuing 'Object A',"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13, No. 11, pp. 1706-1714, 2010.
- [8] S. Ahn, "Mimetic Desires Expressed in Hong Sang Su's Movie-Storytelling of Mimetic Desires through <Oki's Movie>," *Humanities Contents*, Vol. 29, pp. 49-69, 2013.
- [9] L. Seger, *Writing Subtext*, Vizandviz, Seoul, 2014.
- [10] S. Kim, "The Aspect of Desire in the Movie Thirst," *Studies in Humanities*, Vol. 28, pp. 385-406, 2011.
- [11] W. Park, "The Subversive Effect Retrospective Structure and Camera-gaze Creates-About Questions <Bangja-jeon> Asks <Chunhyang-jeon>," *Asian Cinema Studies*, Vol. 3, No. 2, pp. 64-92, 2010.
- [12] J. Kim, *Mimesis Theory of Rene Girard-Desire, Imitation, Competition and Ego*, Moonji, Seoul, 2016.
- [13] H. Cho, "Cultural Politics in the Age of Post-Hegemony : Pleasure, Power and Popular Culture," *The Journal of Literature and Film*, Vol. 11, No. 1, pp. 183-208, 2010.
- [14] M. Kim, *Rene Girard, Desire, Violence, Anthropology of Redemption*, Salim, Seoul, 2008.



손민영

2009년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영화영상학사)
2016년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영화영상제작석사)
2016년~현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박사과정

관심분야: 영화연출, 시나리오, 영화영상교육



정원식

2000년 고려대학교 철학과(문학사)
2009년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영화영상제작석사)
2014년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영화영상제작박사)

2015년~현재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조교수
관심분야: 스토리텔링, 영화영상, 뉴미디어, 웹콘텐츠